

마흔째 절의 숨겨진 역사 - 열여덟 번째 수

둘째 화 - 제5부

Jeff Pippenger

2026-07-15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니느웨의 전투를 상징하는 “열쇠”는 전환점을 산출한 역사로 성취되었는데, 물론 그것이야말로 열쇠가 하는 일이다. 나의 주장은 니느웨의 전투가 이슬람의 부상을 표시하는 역사적 열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언적 열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 전투의 예언적 역학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성경 예언의 모든 왕국의 노선들을 다니엘서 11장과 일치하도록 정렬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그 모든 왕국이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대하여 함께 증언하게 하며, 더욱 중요하게는 40절의 외적으로 감추어진 역사를 봉인 해제하게 한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9.

무함마드 왕국의 해방과 부상

627년의 니네베 전투는 하나님의 섭리의 안개가 함께한 가운데 로마의 계략을 통하여 패배한 페르시아 세력의 마지막 십 년의 시작을 표시하였다. 그것은 또한 무함마드의 이슬람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환점을 이루었다. 그 전투는 하나의 억제력을 제거하였는데, 이론상으로는 로마와 페르시아가 둘 다 그들의 힘을 유지하였더라면 그 억제력은 계속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둘 다 그러지 못하였다.

억제와 해방

이슬람에 대한 예언적 표상에서 우리는 성경이 처음 제시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슬람의 억제와 해방을 보게 되는데, 곧 사라가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억제하게 한 일에서이다.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억울함이 당신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니와,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보고는 내가 그의 눈에 멸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라. 사라가 그를 학대하매 그가 사라의 앞을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창세기 16:5, 6.

그 사건 이전부터, 하갈이 예언적 서사 속에 등장하는 이유는 주께서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이다.

이제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그에게 자녀를 낳아 주지 못하였고, 그녀에게는 하갈이라 하는 애굽 여종이 있었다. 사라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 청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소서. 혹 내가 그를 통하여 자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이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창세기 16:1, 2.

무함마드에게 주어졌고 그 후 니네베 전투를 통하여 성취된 요한계시록 9장의 “열쇠”는, 예언적 역사의 어느 특정 시점에서든 이슬람 위에 놓여 있던 “억제”가 제거됨을 나타낸다.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은 굴레를 벗어나 온 지면 위로 돌진하려 하며 가는 길에 파멸과 죽음을 몰고 오는 성난 말로 표상되어 있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0, 217.

모함메드 왕국의 “흥망”은 흥기와 몰락이라기보다 오히려 ‘해방’과 ‘억제’로 표상된다. 이슬람이 예언적으로 해방될 때, 그 해방은 니스웨 전투에 의해 예시되어 왔다.

오직 화들 2527

일곱 나팔 가운데서 이슬람의 화(禍)의 나팔들만이 예언의 역사 속에 처음 도입된 때부터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일관된 세력으로서 역사를 가로질러 이어진다. 서방 로마에 임한 첫 네 나팔은 오도아케르, 겐세리크, 훈족 아틸라, 그리고 알라리크를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마지막 날들에 나타날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의 네 세력을 예표하였다. 그러나 그 현대적 대응물은 그 고대의 네 세력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니다. 화의 나팔들은 그렇지 않다. 이슬람은 일단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해방과 억제의 직접적인 계보를 계속 이어 간다. 화의 나팔들에 있어서 ‘해방’의 “열쇠”는 니스웨 전투로 표지되어 있다.

니코메디아와 1299년 7월 27일

초기의 선구자들은 1299년 7월 27일을 150년의 시작점으로 정확히 확인하였으며, 그 150년은 1449년 7월 27일에 끝났고, 그 날은 다시 391년 15일의 시작이 되어 1840년 8월 11일에 마쳤다.

이전 글에서 우리는 오르한 가지 술탄(오스만 제국 베이리크의 창건자 오스만 1세의 아들)이 니코메디아에 가한 1333년부터 1337년까지의 포위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가 비잔틴의 중요한 도시 니코메디아를 포위하였을 때의 일이다. 그 포위는 그의 아버지 오스만과 함께 시작되었던 니코메디아에 대한 전쟁의 결말이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의 백오십 년은 1299년 7월 27일에 시작되었으며, 예언의 시작으로 그 시작 날짜와 관련된 역사는 주목되어야 한다. 오스만 1세(오스만 왕조의 창건자)는 오르한 가지 술탄의 아버지였는데, 그는 1299년 7월 27일 니코메디아 지역, 곧 니코메디아 성읍 가까이 있는 바페우스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을 상대로 중대한 초기 승리를 거두었다. 니코메디아는 로마 및 초기 비잔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수도 도시였다.

아버지와 아들

1299년 7월 27일, 오스만의 군대는 지방 총독이 이끄는 비잔틴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 전투는 오스만이 비티니아(아나톨리아 북서부)에서 권력을 공고히하기 시작한 이후 거둔 최초의 중대한 독자적 군사적 성공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이는 작은 튀르크 베일리크(부족 공국)에서 장차 비잔틴 영토에 도전하고 그것을 정복하게 될 신흥 세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이루었다. 그 날짜는 이슬람의 성장기가 시작된 시점을 표시하며, 그 성장은 마침내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과 더불어 오스만 제국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오스만은 가지 전사들(이슬람적 동기를 지닌 변경의 약탈

전사들)을 활용하였고, 이때부터 가지 변경 전사들이 보다 체계적인 군대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오스만으로부터 그의 아들 오르한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오스만의 유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질서한 치고 빠지기식 전술로 승리의 전리품만을 남길 뿐 결코 어떠한 영토도 확보하지 못하던 가지 전사들의 전쟁 방식과는 달리, 이슬람이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1299년 7월 27일, 오스만은 니코메디아 지역에서 원정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삼십사 년 후 그의 아들은 수도 도시 니코메디아에 대하여 사 년간의 포위를 시작하였다. 시작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끝에는 아들이 있었다. 전쟁은 니코메디아로 표상된 지역을 향하여 시작되어, 그 지역 니코메디아의 수도 도시인 니코메디아를 함락함으로써 끝난다. 1299년부터 1337년까지는 삼십팔 년의 기간이며, 예언적으로 “삼십팔”이라는 숫자는 일어섬을 상징한다.

이제 일어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시내 세렛을 건너라. 그리하여 우리가 시내 세렛을 건넜다.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시내 세렛을 건너기까지의 기간은 삼십팔 년이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전쟁하던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진영 가운데서 다 소멸되기까지라. 신명기 2:13, 14.

1299년 7월 27일부터 1449년 7월 27일까지의 백오십 년은 요한계시록 9장의 둘째 화에 해당하는 오스만 제국의 수립으로 이끈 기간을 나타낸다. 니코메디아를 점진적으로 정복해 간 삼십팔 년은 한 아버지(오스만)로 시작하여 그의 아들(오르한)로 끝났다. 이 기간은 한 부족 공국이 제국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흥기하는 첫 단계를 묘사한다.

1299년 7월 27일부터 1449년 7월 27일까지의 백오십 년은 삼십팔 년의 끝을 이루는 사 년간의 포위를 포함한다. 니코메디아 정복의 시작은 아버지 오스만에 의한 것이었고, 그 끝은 1333년부터 1337년까지의 사 년간의 포위에 의하여 성취되었으니, 그 포위는 오스만의 아들에 의해 수행된 것이었다.

1449년 7월 27일에 그 백오십 년이 끝났을 때,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 곧 동방 로마의 마지막 콘스탄티누스는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투르크인들의 허락을 구하였다. 그 날짜로부터 콘스탄티노플이 정복되기까지는 사 년이 있었다. 그 사 년은 콘스탄티노플 포위로 끝났고, 마지막 콘스탄티누스는 그 포위 중에 죽었다. 이슬람의 부상은 백오십 년 예언의 처음 삼십팔 년으로 표상되며, 그것은 사 년간의 포위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 백오십 년이 끝났을 때, 이슬람은 투르크인들이 그때 소유하고 있던 권세로 인하여 동방 로마가 굴욕을 당할 정도에까지 올라와 있었다. 1449년 7월 27일의 그 굴욕으로부터 사 년이 지나, 콘스탄티노플이 포위로 함락됨으로써 동방 로마의 멸망에 이르렀다. 처음 삼십팔 년의 끝은 한 포위로 표시되며, 오스만 제국의 확립도 한 포위로 표시된다.

38과 40

신명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의 사십 년 방황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삼십팔 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숫자 삼십팔은 상징으로서 숫자 사십과 연관성을 지닌다. 오스만은 1299년 7월 27일 니코메디아의 영토를 취하였고, 그로부터 삼십팔 년 후 그의 아들이 그 영토의 수도를 취하였다. 그 영토와 수도는 둘 다 니코메디아였다.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오스만 제국의 발흥의 바로 시작을 드러내는 ‘두’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로 규정한다. 역사에 의해 규정되는 두 번째 단계는 1301년의 니케아 전투이다. 그곳에서 아버지 오스만은 니케아라 불리는 영토를 취하였고, 그로부터 삼십 년 후인 1331년에 그의 아들이 이전의 로마 수도였던 니케아라는 이름의 수도를 취하였다.

1299년과 니코메디아 전투와의 관련성에서, 두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에 이어 두 번째 단계는 2년 후인 1301년에 이르렀다. 1299년은 38의 상징이며, 2년 후(곧 40)에 니케아의 영토는 아버지에 의해 점령된다.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38과 40의 관계가 1299년 7월 27일과 1301년에 나타나 있다. 이슬람의 부상이 이루어지는 그 첫 두 단계는, 처음에 아버지가 그 영토를 정복하고 마지막에 아들이 그 영토의 수도를 정복하는 군사 원정들로 표시된다. 그 두 수도가 함락되었을 때, 그것들은 포위 공격으로 함락되었다. 두 수도는 모두 한때 동로마의 수도들이었다.

1299년 7월 27일과 1301년은 1840년 8월 11일에 그 종말에 이르며, 이는 1838년의 역사를 표상하는데, 그때에 리치는 마침내 1840년 8월 11일에 성취될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 예언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예측을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밀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일어서는 두 단계는 1838년과 1840년이였다.

“1840년에 예언의 또 하나의 놀라운 성취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로부터 2년 전, 재림을 전파하던 지도적인 목사들 중 한 사람이었던 조시아 리치는 오스만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면서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한 해설을 출판하였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 세력은 ‘서기 1840년, 8월 중 어느 때인가’ 전복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성취의 불과 며칠 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첫째 기간 150년이 터키의 허락으로 데아코제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정확히 성취되었고, 또 391년 15일이 그 첫째 기간의 끝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에 끝날 것이며, 그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스만 세력이 꺾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Josiah Litch, in Signs of the Times, and Expositor of Prophecy, August 1, 1840.”

“바로 지정된 그때에 터키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강국들의 보호를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스스로를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지배 아래 두었다. 그 사건은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무수한 사람들이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의 원칙들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추진력이 부여되었다. 학식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밀러와 연합하여 그의 견해를 전파하고 출판하는 일에 함께하였으며,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그 사업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34, 335.

리치의 1838년 예언과 그가 수정한 1840년의 견해에는, 수정된 예언이 있기 열흘 전인 8월 1일에 그가 기록한 그의 최종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 예언의 올바른 방법론을 확신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였다. 고대 이스라엘의 일어섬을 표시한 38년에는, 홍해를 건넌 때부터 가데스에서의 첫 번째 반역에 이르기까지의 2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나의 영광과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들을 보고서도 이제까지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모든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노엽게 한 자는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14:22, 23.

그 반역은 열 가지 시험 중 마지막 것으로 규정된다. 열 가지 시험으로 이루어진 2년의 시험 기간이 광야에서의 38년에 더해진 것은 1838년과 1840년을 예표하였으며, 1840년에는 열흘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1299년 7월 27일 오스만과 함께 이슬람의 부상이 시작된 그 시점은 1337년에 네 해에 걸친 포위로 끝나는 38년의 기간을 시작한다. 1299년 7월 27일은 역사가들이 오스만 제국의 부상의 출발점으로 지목하는 두 단계 가운데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단계는 1301년이었다. 1299년과 1301년에 있었던 니코메디아와 니케아의 전투라는 두 단계는 1838년과 1840년을 예표한다. 예언의 시작은 그 끝을 보여 준다.

니코메디아와 니케아는 각각의 역사에서 모두 한동안 동로마의 수도 역할을 하였다. 물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마침내 330년부터 1453년까지 동방의 수도가 되었다. 니코메디아와 니케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을 예표한다. 이 모든 도시는 이슬람의 포위 공격으로 함락되었으며, 그것은 이슬람이 먼저 그 영토를 장악한 후 이어서 수도를 점령한 한 원정의 결말을 이루는 것이었다.

1333년부터 1337년까지의 첫 번째 4년간의 포위는 예언이 끝난 1449년부터 1453년까지의 4년을 나타낸다. 그로부터 삼백구십일 년 십오 일 후에, 1299년 7월 27일과 1449년 7월 27일의 역사에 대한 알파 역사 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른여덟과 마흔'이라는 특징들로 표상된 예언적 권세 아래에서 밀러파가 '일어남'에 따라 이슬람은 제지된다. 이슬람의 일어남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기별자들의 일어남은 38과 40의 수적 관계로 구성된 하나의 수적 상징으로 표상된다.

에스겔 37장에서 이슬람은 죽은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져 그들이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는 동풍의 기별이다. 에스겔의 기별이 도착할 때 일어섬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1838년과 1840년의 밀러주의 역사에서 그러했던 것과 같다. 그 기별은 9/11에 도착하였고, 임박한 일요일 법 때에 그 뼈들은 큰 군대로 일어선다. 마지막 날들에 승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은 1838년과 1840년으로 예표된다. 9/11부터 일요일 법까지는 1840년에서 1844년으로 예표되었으나, 또한 2023년 12월 31일부터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이르는 기간도 예표한다.

동로마

콘스탄티누스 1세(대제)에 의한 제국의 분열로부터 마지막 콘스탄티누스에 이르기까지는 동로마의 예언적 역사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 예언적 기간은, 비록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콘스탄티누스 11세 사이에 직접적인 혈통 계승은 없었을지라도, 그들의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예언적 혹은 상징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첫 번째와 마지막 콘스탄티누스는 예언적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상징으로도 나타나며, 아버지(알파)는 콘스탄티노폴을 수도로 선택하였고, 아들(오메가)은 콘스탄티노폴이 더 이상 수도가 아니게 되었을 때 그 포위 공격 가운데서 죽었다. 동로마의 예언적 기간은 처음과 마지막 콘스탄티누스로 표시된다. 1299년 7월 27일에 시작된 150년의 기간은 38년의 기간을 포함하며, 40년의 포위로 끝난다. 그 포위는 1449년부터 1453년까지를 예표하였다. 니코메디아 원정은 한 영토가 정복되는 것으로 시작되어 그 영토의 수도가 정복되는 것으로 끝났다. 첫 번째와 마지막 콘스탄티누스의 경우와 같이, 니코메디아의 정복은 아버지(처음)로 시작되어 아들(마지막)로 끝났다.

사 년

마지막 콘스탄티누스의 굴욕이 있는 1449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포위되어 함락된 1453년에 이르기까지의 그 네 해로 이끌었던 일백오십 년의 시작 시기에 있었던 사 년간의 포위였다. 둘째 화의 때의 예언은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1449년 7월 27일에 시작되어 1840년 8월 11일에 끝났다. 그 날짜는 화의 자매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불렀던 사 년 기간의 시작을 이룬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연합하는 그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히 비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적 범위와 전례 없는 능력을 지닌 한 사업이 예언되어 있다. 1840-44년의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전해졌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래 어느 나라에서도 목격된 적이 없는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조차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일어날 강력한 운동에 의해 능가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1.

이슬람은 1840년 8월 11일에 제지되었으며, 그 후 사 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신 사건과,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사건, 곧 제삼 화의 이슬람이 9/11에 뉴욕의 “큰 건물들”을 쳤을 때와 모두 부합한다. 9/11은 십사만 사천의 인 치는 때의 시작을 표한다. 인 치는 일은 하나의 기간이며, 그 인 치는 기간의 끝맺음은 그 기간의 시작이 지닌 특성들을 지닌다. 그리스도께서 9/11에 내려오셨을 때, 그는 2023년 12월 31일에 두 증인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내려오는 미가엘을 예표하셨는데, 그때 인 치는 일의 마지막 기간이 시작되었다.

니느웨의 전쟁인 그 열쇠는 이슬람의 다양한 출현을 나타내며, 그것은 1453년까지 동방 로마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었다. 제10절의 “다섯 달”인 백오십 년 안에서, 시작과 또한 끝에는 각각 사 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 두 사 년의 기간은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의 결말과 연결되며, 그것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사 년의 기간을 가리켰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실 것이었다. 1844년에 이르러서는 예언적 시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으니, 이는 때가 “다시 없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또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두고 맹세하기를, 지체함이 다시 없으리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10:6.

1333에서 1337까지, 1449에서 1453까지, 1840에서 1844까지

그 세 개의 4년 기간의 선들은 9·11로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는 인침의 시기와 일치하며, 또한 2023년 12월 31일부터 이슬람이 다시 놓여 내슈빌의 불덩이들을 전달할 때까지로 표상되는, 9·11로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는 프랙탈과도 일치한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이르기까지의 예언적 프랙탈은, 모두 9/11로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는 인침의 시기와 일치하는 세 개의 4년 예언 기간으로 전형화되어 왔다. 그러므로 네 증인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내슈빌 공격에 이르는 역사를 식별하며, 이 증인들 각각에 대한 “열쇠”는 니느웨의 전투였다. 1333년, 1449년, 1840년, 그리고 9/11은 모두 전환점, 곧 “열쇠”였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행하신 것과 동일한 노선 위에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러한 점들에 주의가 요청된다. 그분의 손길은 그분의 사업 가운데서와 민족들 가운데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에덴에서 아담에게 복음이 처음 선포된 이래 항상 그러했던 것과 똑같다.

“국가들과 교회의 역사에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들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서로 다른 위기들이 이를 때에는, 그때를 위한 빛이 주어진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영적 진보가 있으며, 그것이 거절되면 영적 쇠퇴와 파선이 뒤따른다. 주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서, 과거에 수행되어 온 바 그대로,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마지막 투쟁에 이르기까지 수행될 복음의 진취적 사업을 밝혀 주셨으니, 그때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그들의 마지막 경이로운 움직임을 일으킬 것이다.” Bible Echo, August 26, 1895.

니코메디아

284년에 황제가 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93년에 제국을 법적으로 동서로 분할하고 사두정치 체제를 확립하면서, 니코메디아를 로마 제국의 동방 수도로 선택하였다. 니코메디아는 수십 년 동안 동방의 주요 행정 및 군사 수도로 기능하였다. 대제 콘스탄티누스는 인근 비잔티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이곳을 근거지로 삼았으며(그는 330년에 그 이름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꾸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주된 수도가 된 이후에도, 니코메디아는 마르마라해 동쪽 연안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중요한 지역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니코메디아는 로마나 콘스탄티노폴리스와 같은 영구적인 수도는 아니었지만, 로마 역사에서 중대한 과도기 동안 공식적으로 동방 수도로 지정되었다. 그 백오십 년의 시작에는 동로마의 한 수도가 정복되었고, 그 끝에도 동로마의 한 수도가 정복되었다. 두 정복 모두 포위를 포함하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93년에 사두정치 체제를 시행하면서 니코메디아를 로마 제국의 동방 수도로 공식 지정하였다. 사두정치 체제는 제국을 서방과 동방으로 나눈 체제로서, 동서 양측에 각각 선임 황제(Augusti)와 부제 황제(Caesar)를 두어, '사두정치'라는 말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그 수를 넷으로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서머나 교회의 오메가 상징이며, 네로는 알파 상징이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버가모 교회의 알파 상징이며, 유스티니아누스는 오메가 상징이다.

로마가 동과 서로 '법적으로' 분할된 것(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은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의해 이루어졌고, 로마가 동과 서로 예언적으로 분할된 것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해의 둘째 상징적 교회인 서머나로 대표되는 역사의 기간 동안 로마는 법적으로 동과 서로 분할되었고, 타협의 셋째 상징적 교회인 버가모로 대표되는 역사의 기간 동안 로마는 예언적으로 동과 서로 분할되었다. 293년은 알파였고 330년은 오메가였으며, 330년 5월 11일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콘스탄티노폴을 제국의 수도로 봉헌하였다.

29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단행한 법적 분할은, 그 뒤를 이은 내전을 통하여 313년의 밀라노 칙령에 이르기까지 무너져 내렸다. 이때 동방의 콘스탄티누스와 서방의 리키니우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합법화하였고, 사실상 사두정치—서로 조정된 네 통치자의 체제였으나 두 주요 권력(서방의 콘스탄티누스와 동방의 리키니우스) 사이의 투쟁으로 붕괴된 그 체제—를 종결시켰다. 붕괴를 불러온 이 법적 분할은 분할에서 분할에 이르는 20년의 기간을 나타내며, 두 분할 모두 체제의 붕괴를 촉발하였다.

서머나 교회는 주후 64년 네로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다고 네로가 비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이용되었다. 네로는 박해의 시작을 표지하며, 마지막 날들의 최종적인 박해를 예표한다. 그 최종적 박해는 유예 기간의 종결까지 계속되며, 그때 교황권은 도와줄 자 없이 그 종말에 이른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박해의 시기는 로마의 불탐으로 시작되었고, 로마의 불탐으로 끝난다.

또 네가 본 바 그 짐승 위에 있는 열 뿔은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를 황폐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의 살을 먹고 그를 불로 태우리라. 요한계시록 17:16.

서머나 교회는 64년에 네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네로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이용되었고, 네로는 그들이 그 불을 질렀다고 고발하였다. 이백오십 년 후 그것은 밀라노 칙령과 함께 313년에 끝났다. 그 “칙령”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법적 분할로 시작된 이십 년 기간의 종결이었으며, 또한 네로와 함께 시작된 서머나의 이백오십 년의 종결이기도 하였다. 서머나 교회와 네로로 상징되는 이백오십 년의 박해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야기한 가장 혹독한 박해의 십 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십 년의 박해는 293년에 제국의 법적 분할로 시작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이십 년 가운데 마지막 절반이었다. 29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을 동과 서로 법적으로 분할한 때로부터, 두 개의 십 년 기간으로 이루어진 이십 년 기간이 시작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법적으로 동방과 서방으로 분할하였으며, 이로써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성취된 예언적 분할을 예표하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분할은 동방과 서방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체제는 동방에 두 통치자와 서방에 두 통치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지역마다 한 명의 주된 통치자와 한 명의 부차적 통치자가 있었다. 303년 2월 23일,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항하는 여러 차례의 ‘칙령’ 가운데 첫 번째 칙령을 반포하였는데, 이는 대박해(또한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라고도 불림), 곧 로마 제국 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장 가혹하고 광범위한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나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아니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의 비방도 아노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8-10.

대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후계자들(특히 갈레리우스) 아래에서 313년까지 계속되었고, 그해 밀라노 칙령으로 종결되었다. 네로는 서머나 교회로 대표되는 예언적 기간의 오메가적 박해인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박해의 알파 상징이다. 그 박해는 동방의 콘스탄티누스와 서방의 리키니우스 사이의 정치적 혼인과 조약으로 마무리되었다. 313년 2월,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는 밀라노에서 만나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였으며, 이 칙령은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종교적 관용을 허락하였다. 그들의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키니우스는 이 회동 중 또는 그 무렵 콘스탄티아(콘스탄티누스의 이복누이)와 결혼하였다. 이 결혼은 전형적인 로마의 정치적 동맹으로서, 두 황제 사이의 합의를 확증하였고 수년간의 내전 이후 제국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동맹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후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는 서로 전쟁을 벌였고, 324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를 패배시켜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다.

네로로부터 콘스탄티네 이르기까지 스미르나의 예언적 기간 이백오십 년이 성취되었고, 313년에 타협적 교회인 버가모 교회가 시작되어 538년에 두아디라 교회로 끝났다. 스미르나의 이백오십 년은 박해의 기간을 나타내었으며, 그 전체 기간의 종결부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는 요한계시록의 “열흘”(십 년)을 성취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극심한 박해의 시기가 전체 기간의 프랙털을 나타낸다. 그 십 년은 이백오십 년의 프랙털이다. 그 십 년은 네로의 박해의 오메가를 나타내며, 그것이 끝날 때 제국은 오메가 분열로 동서로 나뉘었다.

결혼과 이혼

스미르나는 64년에 로마의 화재와 함께 시작되어, 250년 후인 313년에 밀라노 칙령과 동서의 정치적 혼인으로 끝이 났다. 박해의 10년 프랙털은 303년에 시작되어 313년에 밀라노 칙령과 동서의 정치적 혼인으로 끝이 났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293년에 동서의 법적 분할을 행함으로써 시작된 20년은, 313년에 동서의 정치적 혼인으로 끝이 났다. 313년에 동서 사이에 맺어진 혼인 조약은 324년의 이혼으로 끝났는데, 그때 콘스탄티누스가 서방의 리키니우스를 패배시키고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다. 예언적 이혼인 324년은 321년의 첫 번째 일요일 법령이 있는 지 3년 후에 일어났다.

313년부터 330년까지의 17년은 하나의 정치적 결혼을 식별하며, 서머나와 네로로 표상된 박해의 종결과 버가모로 표상된 타협적 교회의 시작을 나타낸다. 결혼과 함께 313년에 시작된 버가모의 출발은, 321년 최초의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된 박해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그 뒤를 이어 324년의 예언적 이혼이 있었고, 그것은 콘스탄티누스 아래 동방과 서방을 하나의 제국으로 가져왔다. 6년 후인 330년에 동방과 서방으로의 분열이 예언적으로 반복되었다. 그 17년은 버가모 교회의 알파 기간을 나타내며, 이 기간은 두아디라 교회가 538년에 예언적 역사에 등장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다. 그 알파 기간은 330년부터 538년까지의 기간 끝에 있는 오메가 역사를 표상할 것이었다. 버가모의 오메가 역사는 496년, 508년, 533년의 기간을 나타낸다.

십칠 년

라피아 전투의 프톨레마이오스는 "십칠 년" 동안 통치하였고,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 사이에도 "십칠 년"이 있었다. 그 십칠 년은 상징적으로 313년부터 330년까지의 십칠 년과 일치한다. 네로의 서머나의 이백오십 년은 버가모 교회의 첫 십칠 년으로 이어졌으며, 또한 기원전 457년 제삼 차 칙령에서 시작된 이백오십 년과 연결되는데, 그것은 다니엘 8장 14절의 2300년의 기점이자 재림교회의 기초와 중심 기둥이다. 이백오십 년의 두 증인은 1776년에 시작되어 금년 2026년에 끝나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이백오십 년과 일치한다.

재림신앙의 선구자들은 313년부터 330년까지의 십칠 년을 보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1844년에 그들이 아직 제칠일 안식일의 쟁점이나 태양의 날의 문제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계시록 9장 10절의 백오십 년은 인식하였고,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에 끝난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로 이어지는 한 기간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이해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현현"을 낳았다.

선구자들은 요한계시록 9장 안에 있는 두 번째 백오십 년의 기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기초적인 이해는 요한계시록 9장의 "새 빛"이 세워지는 토대를 이룬다. 그 빛은 니스웨 전쟁의 "열쇠"에 의해 열리게 된다. 그 "열쇠"는 예언을 연구하는 자로 하여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경 예언의 모든 왕국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곧 바벨론, 메대-바사, 헬라, 셀레우코스과 프톨레마이오스 제국들, 마호메트의 왕국,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로마의 제국을 확대하여 드러내는데, 이는 로마뿐만 아니라 동로마와 서로마의 왕국들, 아울러 미국(거짓 선지자), 교황권(짐승), 그리고 국제연합(용)의 흥망까지도 식별하기 때문이다. 이 왕국들의 모든 흥망은 결국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움직임을 증언한다. 그 움직임은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 안에 나타나 있으며, 그 움직임의 시작은 40절의 숨겨진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

니스웨 전투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로마 제국, 동로마와 서로마의 왕국들, 그리고 교황권 로마의 증언들을 정렬시키기 위한 예언적 기준점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니스웨 전투는 로마에 관한 다양한 예언적 증언들을 온전히 밝혀 주는 열쇠이며, 다니엘 11장 14절에 따르면 그 환상을 세우는 것은 로마이다. 그 노선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열쇠는 니스웨 전투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요한계시록 9장의 화들에 대해 다룬 앞선 다섯 편의 글을 함께 종합하기 시작할 것이다.